

우리에게 건축의 장르는 존재하는가?

Do we have a genre
of architecture?

글. 김창균
Kim, Changgyun
(주)유타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최근 우리의 건축은 과거 그 어떤 시기보다 황금의 르네상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 90년대부터 시작한 건축 유학의 열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국내외에서 실무를 수련한 30~40대의 젊은 건축사들이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외연을 폭넓게 넓히고 있다. 이러한 인적 바탕에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들도 규모와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건축가 제도를 통한 기획과 설계, 특히 공모전의 기회가 대폭 늘어나면서 많은 건축사들이 다양하고 의미있는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활발해진 활동을 소개하는 매체 또한 다양해지고 여기저기서 비교적 손쉽게 소식을 접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일부 건축 전문지만 건축물과 그 소식을 주로 다루었다면 요즘은 모든 매체에서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서점을 가더라도 다양한 건축 관련 책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중교통인 KTX 열차나 비행기 내 매거진에서도 건축이 자주 소개되고 있어 매번 반갑게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각적 정보를 보여주는 TV와 YouTube, 영화 등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건축물과 그 배경 이야기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일을 만드는 의뢰인의 입장인 예비 건축주들의 안목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 구조상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휴대폰 보급과 함께 SNS 등이 확장되면서 정보가 넘쳐나고 모든 분야에 걸쳐 각자의 개성 표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최근 포털사이트의 리빙이나 디자인 코너에 소개되는 주택을 비롯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건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대부분 본인의 공간에 타인의 공간과는 다른 이야기를 담으려 하고 각자의 개성을 강조하는 현상이 뚜렷하

다. 이러한 분위기에 건축사들도 다양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 양질의 프로젝트도 폭넓게 소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계 내부는 물론이고 대중이 바라보는 건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앞으로 이어질 세계적 수준의 작업들을 예측해보는 것은 결코 개인적 욕심이 아닐 것이다.

건축사는 없고 설계는 건설의 하위 카테고리인가?

이와 같은 주변 인식과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네 건축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건축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그저 기술자로 취급받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하고, 건축설계를 독자적인 장르 혹은 문화 영역으로 인정받는 다른 나라를 언제나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아직도 건축학과에 입학했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당연히 졸업 후 대기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계산한다. 건축기사는 알아도 건축사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건축사사무소는 그저 고생만 하는 하위의 직업군으로 인식이 되어있다. 얼마 전 예비 건축주와 상담을 하는데 그분은 내가 제시한 설계비를 모 대학교 건축과 교수와 비교하면서 “교수도 아닌데 설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고 하신다. 심지어 그 교수는 건축사도 없지만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듯 자연스럽게 말씀하신다. 전국 여기저기서 열리는 건축박람회를 가보면 건축사 없이 설계를 그저 건설의 하위 카테고리로 보는 현상은 더 분명해진다. 각 시공사 부스마다 규모검토와 설계비는 당연히 무료라고 광고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하면 어떤 설계라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건축사 없이 지어지는 주택이 년간 수백 채라고 하니 그 안에서 의

사, 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건축사를 인정해 달라고 외치고 설계비를 정상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일지 모른다.

이처럼 건축사 혹은 건축설계가 독자적인 장르 혹은 직업군이 아닌 건설의 일부로 인식되는 현상은 사회적 혹은 대중의 인식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건축계 내부의 인식이 더 문제다. 이는 과거 턱키를 통해 건축사사무소가 시공사의 파트너로 참여하며 설계사무소의 규모를 키울 때부터 고착화되어 이후 더욱 심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일례로 일반인은 물론이고 건축계에서도 이제 착공신고는 당연히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웬만한 시공사가 아니고는 아예 세움터 혹은 착공신고를 할지도 모르고 그건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묻는다. 어느 순간부터 설계사무소의 업무는 시공사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당연해지고 그 양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분명 건축설계가 하는 일과 건설에서의 업무가 다른데도 말이다.

장르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서

글의 서두에서 말한 사회적 변화 혹은 다양성을 담고 건축이 사회 문화적으로 독자적 영역을 인정 받으려면 위와 같은 건설과 건축의 문제 이외에도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아직도 건축계 대부분의 뉴스는 건축을 만드는 우리네 삶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일부 뛰어난 건축사(해외 건축사 포함) 개인의 역량과 눈에 보여지는 디자인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철저히 엘리트적인 그들만의 리그에 가깝고 상업주의적인 면모만 보인다. 가까운 일본에서 건축 전시장을 가면 70~80대 노인층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층이 관심을 가지는데 반해 우리는 기껏해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건축과 학생들뿐이다. 다음으로 산업 혹은 기술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한 건축의 내실있는 발전이 절실하다. 사실 건축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산업과 기술의 발전은 아직도 90년대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 해외 기술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창문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설계 단계에서 독일식 창호를 찾기에 한국식 창호는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기술로 건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기술과 자재를 그대로 수입해서 파는 게 남는 장사다. 이는 창문만의 문제가 아닌 건축 전반의 심각한 문제이다. 현대의 건축이 과거

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을 염두한다면 근본적인 생각부터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 스스로 기술의 한계로 인해 기본 사고와 건축 설계의 한계를 가져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부분은 대학 등 건축 교육 단계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하며 우리 건축 틀을 과감히 벗어나려는 보다 다양한 시도와 함께 다른 학문, 산업과의 다양한 융합과 협업이 필요하다. 건축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 완성되는 다양한 건축에서 이것이 느껴질 때 대중은 자연스럽게 건축이라는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독자적 존재로 인식할 것이다.

얼마 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인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다. 사실 건축에서 4.3그룹이 활동하던 시기만 해도 영화는 건축보다 한참 수준이 낮은 장르라고(어쩌면 우리끼리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영화는 벌써 베니스 영화제에 이어 두 번째 쾌거이고 건축은 매년 이웃 나라 수상 소식에 배만 아픈 게 사실이다. 건축에서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해도 영화나 음악처럼 전체 건축계가 대중에게 어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희망적 변화와 토대 위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기본기를 다지며 언제나 대중에게 가까운 존재로서 건축을 염두해 두어야 장르 그 이상의 가치와 힘을 가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왜곡된 설계비의 정상화는 영원히 불가능하고 건축사의 미래는 공인중개사 혹은 미술사 보다 못할지도 모른다.



김창균 (주)유타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1971년생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해병대사령부 건축설계실, 에이텍 건축 등에서 손 도면으로 시작하여 건축설계뿐 아니라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며 실무경험을 쌓았고, 2006년 (주)리슈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를 거쳐 2009년 UTA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했다 (한국건축사). 현재 (주)유타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서울시 공공건축가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젊은 건축가 상'을 2011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작업으로 포천 피노키오 예술체험공간, 서울시립대학교 정문, 삼청기암장, 수원 상가주택 (The Square), 울산 간절곶 카페0732, 운중동 단독주택(도시채), 세종 단독주택(하품집) 등이 있다.

prism082@nate.com

BCS (Building Construction Specifications)

BCS는 건축사사무소, 공공기관, 건축주, 그리고 건축자재 생산업체를 위해 영문 건축시방서를 전문으로 작성 및 컨설팅하는 소규모 업체로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아프리카 및 북미 등 세계에 걸쳐 건축시방서를 작성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김기호는 미국건설시방협회의 건설시방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1984년 미 COE SOFA A&E 버저우보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면서 건축시방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으며, 2019년 현재까지 2,000 프로젝트 이상의 건축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FED표준시방서를 update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회사의 본부건물, 주거건물, 학교, 병원, 교회, 어린이 개발센터, 차량정비시설, 창고, 격납고, 체육관, 그리고 초고층 건물 등 모든 종류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해왔습니다. 또한 주한영국대사관 증축공사, 대우전자 사옥(39층), ASEM 및 한국무역센터(42층), 에리트레아 아스마라 대학교, 그리고 가나공화국 아크라밀레니엄 타워즈 등의 신축공사 시방서를 작성 공급했습니다.

BCS는 미 CSI MasterFormat을 바탕으로 하며 NASA가 개발한 SpecsIntac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문시방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작성된 시방서를 PDF 및 SEC 파일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물론 verification reports 기능으로 모든 brackets, references, cross sections 및 submittal items를 오타와 함께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다만 BCS는 국토부 발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포맷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의 표준시방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CSI MasterFormat에 부합하지 않으며, 각 section 별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문건축시방서가 필요하실 때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CS is a small firm providing building construction specifications for architects, engineers, building owners, public institutions, government agencies, and construction product manufacturers throughout Asia, Africa, and North America. Mr. Kiho Kim of the firm founder is a CCS (Certified Construction Specifier) and a professional member of the CSI (Construction Specifications Institute), Alexandria VA, USA. He began specifications writing since 1984 as he got started working for Berger-Woobo A&E, one of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SOFA A&E contractors. He has written approximately over 2,000 construction project specifications for almost all kinds of facilities such as headquarters buildings, housings, schools, child development centers, hospitals, dental clinics, churches, vehicle maintenance facilities, warehouses, aircraft shelters, gymnasiums, physical readiness centers, commissaries, welfare facilities, and tall buildings, etc. He also wrote building construction specifications such as Extension of British Embassy to South Korea, Daewoo Electronics HQs Building (39 story), ASEM & Korea Trade Center (42 story), Asmara University in Eritrea, and Acra Millennium Towers in Ghana Republic. Project specifications that BCS provides are based on the CSI MasterFormat, using the UFGS and SpecsIntact program. So, we furnish PDF as well as SEC files followed by the submittal register. All verification reports will have been cleared surely before furnishing the files to the clients. Hard copies are furnished too as requested. When you need a good construction project specifications in English, call us. Thank you.

Phone _ 010-3808-0762 Email _ kihokimccs@gmail.com